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2호 [루게 제2710호]

주제 111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음력 7월 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국통일의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어버이

조국해방 77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그이의 위대한 한생을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평생이기도 하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 이끄시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으셨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으신 크나큰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절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국의 남조선강경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시종일관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전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온 겨레를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불리우키신 수령님의 업적은 오늘날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나의 조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



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에도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온 민족을 불리우키시였고 격렬한 투쟁을 견지하시였으며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가 조성될 때마다 민족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시하시어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열렬한 민족애와 고결한 덕망으로 겨레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리신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높아지고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성이 강화되었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과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북남교회위급회담을 발기하시고 그 실천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

루도 심려하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려서도 편히 쉬지 못하시었다. 참으로 조국통일로선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해야 할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운동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수 있는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제시하시었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원칙과 방안들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이 힘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시었다.

조국통일운동을 옹호하며 전진시켜나가자면 조국통일의 원칙부터 바로 정해야 한다.

이것을 철리해안의 예지로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일찌기 1970년대초엽에 우리 겨레가 통일운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엄혹한 환경이 조성되던 주제82(1993)년

초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운동은 분렬주의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계속 발전할수 있었다.

4월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제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주제 69(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었다.

이 방안은 통일조국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조국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하기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제시되자마자 온 겨레의 지지, 열렬한 찬동을 불리우셨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불멸의 대강으로 영원히 높이 들고나가도록 해주시었다.

참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방도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고귀하고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어있다.

조국통일의 주제적력량을 강화하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제적력량을 마련하시었고 더욱 강화하시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주제적통일력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 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었다.

해방후 조국에 개선하시어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어 각계각층의 조선사람

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도록 하시어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래동안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과정에 반공사상에 물젖었던 김성락목사를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어 이야기도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새겨져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장로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미국정계에도 잘 알려진 그는 공화국을 방문하는 시각에도 북에 대한 의욕과 경계심을 적지 않게 품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고 그는 80고령에 인생전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그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부친의 반일운동정경과 목사가 미국에서 벌인 애국활동을 평가하시고 공화국의 건국력사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었다. 그리고 이날 목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어 식사

를 하기 전에는 기도도 하도록 조치해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남심으로 감복할 만한 것으로 남은 여생을 조국통일의 길에 바칠 결심을 피력

하였다. 이렇듯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숭고한 덕망, 크나큰 민음이 있어 최후회, 문익환, 윤이상선생을 비롯한 해외의 각계층 민족성인들이 단합의 기치아래 통일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을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어 북과 남, 해외의 통일력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십시오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겨레의 통일열망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대표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진정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현명한 령도에도 북에 대한 의욕과 경계심을 적지 않게 품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고 그는 80고령에 인생전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사상도 령도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즐기치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조국통일운동의 요구에 맞게 자주통일의 결성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길에 앞장서주시어 민족의 업적은 더욱 빛나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령성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지난 8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5년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우리 겨레는 한평생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로고와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주제 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어 우리 겨레에게 통일운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구현해야 할 위대한 투쟁강령을 안겨주시었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로작에는 민족자주원칙을 견지하고 주제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문제, 민족의 주제적력량을 마련하고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오는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우에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업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관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70여년동안이나 외세

의하여 분렬의 고통과 불행 겪고있는것은 참을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민족의 수치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이 땅우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온 겨레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

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는 통일문제해결의 근본담보이며 기본원칙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항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의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온 겨레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각물로 섬겨바치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내외호전강들의 침략전쟁도반칙들을 단호히 짓부서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반전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조건이다. 오늘 조선반도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의

한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들을 받들고 우리 겨레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시었다.

그러나 온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위업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수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가로막으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우에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과업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관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70여년동안이나 외세

한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는 통일문제해결의 근본담보이며 기본원칙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항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의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온 겨레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각물로 섬겨바치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내외호전강들의 침략전쟁도반칙들을 단호히 짓부서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반전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조건이다. 오늘 조선반도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의

하여 언제 어디에서 전쟁의 불꽃이 필것지 모를 사상 류태없는 첩예한 군사적긴장상태에 놓여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반대대결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전체 조선인민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놓고 조국통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을 받들고 만고철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삼천리강토우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맞겠다.